

반야참회... 번뇌론과 선정론 적용한 새 수행법



반야참회
해룡스님 지음
불광 펴냄
1만3천원

저자가 새 수행법으로 주장하는 '반야참회'란 어떤 개념일까?
저자에 따르면 '반야참회'란 전통적인 불교의 번뇌론과 선정 수행론을 기존 참회에 적용해 수행 차원으로 체계화시킨 새로운 참회 수행법이다. 저자는 이 반야참회 수행을 통해 불교 입문자들이 단시간 내에 수행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일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반야참회(般若懺悔)'는 '참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기존 참회와는 그 내용이 매우 다르다.

반야참회는 전통적인 불교의 선정 수행론을 참회에 응용했기 때문에, 높은 단계의 선정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참회를 통해서 수행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이 참회 수행을 계속하면 망상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강화돼, 참선과 같이 높은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어려운 수행도 쉽게 가까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저자가 이 참회법에 '반야참회'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것이 반야 지혜의 체득을 향해 나아가는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반야(般若)란 공성(空性)을 통달하여 일체의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힘과 자비를 갖추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보살행을 해 나갈 수 있는 지혜"라고 말한다.

반야참회가 기존의 참회와 다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야 참회는 참회 방법이 구체적이다. 참회가 수행이 되려면 그 방법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반야참회는 어떤 행위가 악업에 들어가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참회 대상), 그러한 행동이 왜 악업이 되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참회 기준). 그리고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서 참회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참회 방법).

반야지혜 체득 위한 바탕 제공

수행 목표 필요... '해오'로 설정

참회하면 괴로움의 요인 소멸

둘째, 반야 참회는 체계적인 수행법이다. 반야참회의 전체적인 체계는 초급·중급·고급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에는 그 수준에 맞는 참회 대상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포함되어 있다. 참회 대상의 배열은 불교의 번뇌론과 수행론에 따라 신업(身業), 구업(口業), 의업(意業)의 순서로, 그리고 의업 중에서도 탐욕과 성냄 등 알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 점점 깊이 들어가는 체계로 되어 있다. 셋째, 반야 참회는 수행과 현실의 갈등을 해결한다. 반야참회는 불자들이 흔히 겪는 수행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는 악행

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어리석음도 극복할 수 있다.

넷째, 반야참회는 수행의 당면 목표가 있다. 반야참회는 비교적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당면 목표를 제시한다. 수행의 당면 목표는 수행자로 하여금 의욕을 잃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달성했을 때 강한 성취감을 갖게 하여 이후 수행을 지속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참회 수행에서는 이 당면 목표를 '해오(解悟)'로 설정한다.

저자에 따르면 '반야참회'란 전통적인 불교의 번뇌론과 선정 수행론을 기존 참회에 적용해 수행 차원으로 체계화시킨 새로운 참회 수행법이다. 저자는 이 반야참회 수행을 통해 불교 입문자들이 단시간 내에 수행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일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또한 반야참회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반야참회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이 편해진다. 참회 수행을 하면 마음이 아주 편해지고 안정된다. 지난날 했던 잘못을 하나하나 되새겨서 부처님께 참회를 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괴롭히는 요인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의미의 업장 소멸이다.

둘째, 지혜와 힘이 생긴다. 참회 수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 바탕 위에 과거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반성적 사유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결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되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된다. 또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되어

복잡한 현실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갖추게 된다.

셋째, 복의 토대가 쌓이고 소원이 성취된다. 참회 수행을 하게 되면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게 된다. 악업을 짓지 않으니 고통의 과보를 받지 않고, 선업을 쌓으니 행복의 과보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참회는 복의 토대가 된다.

넷째, 수행의 진전이 이루어진다. 참회 수행은 불교의 수행 체계를 갖춘 종합적인 수행법이다. 따라서 참회 수행을 계속하면 저절로 본격적인 수행과 연결된다. 그리하여 높은 단계의 수행도 쉽게 소화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한다. 때로는 위기 상황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도 있고, 병이 낫기도 하며,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 또 가뭄비에 옷 젖듯이 알게 모르게 부처님과 호법신장들의 은근한 보호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반야참회의 수행 체계에는 삼배, 독경, 참회(108배), 염불, 발원 등이 있다.

가서 발원이란 참회와 염불 등 위의 수행 과정이 다 끝나면 무릎 꿇고 합장하고 앉아서 수행 공덕을 회향하며 자기의 소원을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축원과 자신의 원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삼배는 꼭 짚을 하는 의미보다도 시간이 있을 때는 그대로 앉아서 마음속으로 부처님과 대화해도 된다. 또는 자리에 편히 앉아서 조용히 명상에 잠기는 것도 좋고, 요가나 스트레칭 등의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우리가 필요한 것은 통합 리더십

쟁점을 파하다

법륜 스님 지음 | 한겨레출판 펴냄
1만1500원



오래전부터 사회적 쟁점들, 서로 싸우고 풀지 못하는 문제들, 서로 상처받고 손해를 보면서 풀지 못하는 현안들에 대해 그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이야기를 엮어보고자 했다는 스님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2013년을 앞두고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열고자 하는 이들에게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이 책은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치의 변화를 촉구한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생긴 문제에 답을 찾는 과정이라는 게 스님의 생각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은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로의 원하는 바를 잘 정리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역할을 해야 할 정치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바탕으로 그 구성원들의 갈등을 조정해나간다면 되는데, 정치권 자체가 자기들의 이익만 쫓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다. 해군기지가 필요한 해군, 조상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지역 주민, 이 둘 사이에서 소통하고 조율해도 모자를 정치권이, 한쪽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을 비난하기만 하고, 한쪽에서는 지역 주민을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무리라며 비난하기만 한다. 국회야말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국회는 우선 공사를 중단하도록 관련 예산을 동결하고,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로 정말 적합한지 다시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강정마을보다 더 좋은 입지조건이 있다면 그곳에서 다시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 되고, 재검토 결과 강정마을이 최적의 입지라면 최선을 다해 지역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 상처 입은 마음들을 달래줘야 한다. 이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스님은 이 책을 통해, 강정마을, 4대강, 원자력발전소, 변경규칙, 학교 폭력, 다문화가정 문제에서부터 경

제민주화, 개헌, 지방분권, 남북통일, 동아시아 공동체까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들에 대해 특유의 시원한 논리로 해법을 제시한다. 특히 동북아시아를 주도할 통일한국의 모습을 비전으로, 현 단계에서 남한 내의 국민통합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국가시스템 개혁에 대한 제안이다. 대선 과정에서 개헌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통령 임기 문제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님은 대통령의 임기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이며 더 중요한 것은 국가비전이라고 역설한다. 한반도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 그리고 이와 함께 진행될 한중일을 잇는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비전 속에서 필요한 공동체 정비를 준비해나가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사적으로 민족과 국가의 독립이 지난 세기의 과제였다면, 이제는 분권과 통합이 시대적 과제이기에, 이에 맞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체의 권한은 강화하고, 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동

정치 중요성 강조와 변화 촉구

공동체 이익으로 갈등조정해야

현대는 화쟁적 통합 모색 절실

시아 지역 차원의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이나 일본이 주도해서는 균형 있을 동아시아 공동체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큰 틀의 비전을 두고 이에 맞게 국내의 정치시스템을 바꿔가야 할 텐데, 이를 위해 스님은 8도연방제,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내각제(혹은 대통령직선제와 내각제를 합친 모습의 의원집정부제) 등을 제안한다.

스님은 우리 사회에 복잡다단한 여러 갈등이 얽히고설켜 있지만,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답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이전과는 다른 안목과 지혜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하다. 스님은 이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적대적 대립을 넘어서, 새로운 세력들을 정치의 장에 끌어들이고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한다. 경쟁이 아닌 공존의 길, 나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화쟁적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올바른 수행 자세 설명한 해설서

참선요지

해운 스님 지음 | 월서 스님 엮음
아침단청 펴냄 | 1만2천원



참선은 수행자뿐 아니라 일반인에도 쉽게 다가야 한다. 한국의 선불교가 전세계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아 미국, 유럽 등 서구에서만 1천여 개의 한국선원이 개설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도심에 시민 선방이 많이 개설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선수행에 힘쓰고 있다. 이제 참선은 불교에서 승가(僧家)의 한 수행으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해 매우 좋은 수행의 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참선수행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유의한 지침서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

서 볼 때 (참선요지)는 승가나 시민들에게 참선의 요체를 설명하고 올바른 자세로 수행에 매진하여 마음의 고요를 찾게 하는데 필수적인 책이다. 특히 이 책은 사오십년 전부터 한국의 불교 총림과 유서 깊은 선방에서 암암리에 읽혀져 왔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참선 수행하는 사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주해를 달아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의원인 월서 스님은 사회의 대법원장 격인 호계원장을 12년 동안 역임했다. 오늘날 승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바로 승가의 본래 목적인 수행을 게을리한 탓으로 여기고 이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펴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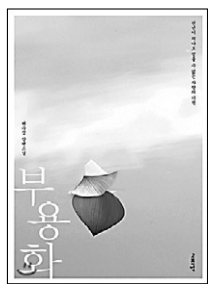
참선이란 한마디로 마음공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자칫 참선수행의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하게 되면, 참선의 진면목을 체험하지도 못한 채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그 의미가 크다.

김주일 기자

초조대장경 육로 운반 그린 소설

부용화

하수정 지음 | 고즈너 펴냄 | 9천원



《부용화》는 고려시대 몽골군의 공격이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 때, 왕권 회복의 전략으로 초조대장경의 과감한 육로 운반을 단행하는 사람들의 여정과 사랑, 음모와 모험을 그린 역사 픽션이다.

몽골 침략과 실권을 쥔 최우에 놀려 무력하기만 한 허수아비 왕은 비밀 계획을 세운다. 전소된 줄 알았던 초조대장경을 세상에 밝혀 민심을 얻으면 왕권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전에 거란 군사도 단숨에 몰아냈던 대장경이었으니가 말이다.

왕의 법사인 우송이 대장경 운반의 총 책임을 맡고, 대장경이 불탈 때 목숨을 걸고

일부나마 빠른 감무의 여식 부용과 학승 진오가 동참한다. 그리고 뒤늦게 출현한 왕의 그림자무사 양무가 호위를 맡는다.

경주 황룡사에서 출발한 이십여 명의 운반대는 금산에 이르러 몽골군의 침략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첩보에 따라 가까운 성으로 피신한다.

다음날, 수만 명의 몽골군이 성을 에워싸고 대장경 반환을 종용한다. 그리고 서서히 밝혀지는 네 사람의 정체는 일련의 상황이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음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성을 벗어날 수 없는 가운데 주인공들은 제각각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며 충돌한다.

몽골군의 대공세가 임박하자 중과부적인 성의 민심은 겁잡을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힌다. 오직 사랑만이 기적을 이루어내겠지만 그런 기적을 믿는 사람은 아직 성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주요 줄거리다.

김주일 기자

초판 22세의 스테디 셀러!!

살은 고가 아니다

10,000원 A5/287쪽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살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음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제)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찬수승(한글/영어)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게송·선화의 집대성
- ▶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금강경(독송문)

*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